

경기도

■ 작년 농식품수출 5억6천만달러 기록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농식품 수출액이 5억6천5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억1천만달러보다 11% 늘어난 규모다.

품목별로는 면류·차류·주류 등 가공식품이 4억100만달러(71%)로 가장 많았다.

닭고기·김 등 축수산물 5천100만달러(9%), 인삼·버섯 등 특작류 4천500만달러(8%), 채소류 2천700만달러(5%), 과실류 2천만달러(4%), 화훼류 1천900만달러(3%) 등 순이다.

경기도가 주력상품으로 키우는 인삼·버섯·김·김치·전통주·채소종자 등은 30~95%의 수출 증가세를 보여 농식품 수출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걸리는 생산시설 지원과 해외 판촉전 개최 등으로 2005년 174만달러에서 지난해 2천만달러로 6년만에 11배 이상 수출액이 증가했다.

수출 국가는 55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국이 전체 수출 비중의 67%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수출액이 1억1천900만달러로 전년도 7천100만달러에 비해 68% 급증했다.

전라남도

■ 무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

무안군은 구제역·시 등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금년도 가축방역대책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무안군은 오는 4월말까지를 가축전염병예방 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차단방역, 소독실시와 함께 구제역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무안군은 이와 함께 항구적인 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소독시설, 분뇨 처리 등 친환경적인 축산시설에 33억여원을 지원하여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약품을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는 가축의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축종별로 관련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부족한 가축방역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개설수익사를 공수의사로 3명을 위촉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찰 및 예방접종, 채혈 등 상시적인 방역활동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 전남축산위생사업소,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작업장 위생관리 점검 등 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도축·가공·판매 단계별로 작업 공정의 위생관리 상태 확인을 위해 연중 수시로 대장균 등 오염지표 세균 3종(대장균,

일반세균, 살모넬라균)을 검사하고 있다.

여기에 식중독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병원성 미생물 6종(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O157:H7, 클로스트리디움균, 리스테리아균, 캄필로박터균)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안전성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햄, 우유, 포장육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도 자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축산물 유통의 첫 번째 단계인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대책으로 식육종의 미생물 검출량을 미국,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켜 쇠고기 대장균 10개 이상/cm² 검출률을 3.0%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축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검사관에게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영 및 위생관리 전반을 1일 점검토록 하고 도축장 위생관리인을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 안전축산물 생산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 자율적인 품질관리 향상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 나주, 농업·축산 연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전남 나주 왕곡과 공산, 반남면 일대 영산강변을 중심으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가 조성된다.

나주시는 2014년까지 100억원을 투입, 영산강 일대 2,200여ha에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지난 1월 25일 밝혔다.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이른바 자원순환형 농업단지다.

지난해 곡성군 겸면 일대 등이 광역단지로 선정됐으며 전남지역에서는 두 번째다.

이는 돼지나 소·닭 등 가축분뇨를 활용해 유기농 퇴비를 만들어 농사에 쓰는 것으로 농축순환자

원화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로 애로가 적지 않은 가축분뇨 처리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가에 친환경농자재 공급과 생산물을 처리할 산지유통시설 건립 등도 추진된다. 이 시설은 한곳에 집중배치해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며 운영은 나주축협 등 지역농협 3곳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맡게 된다.

나주시는 수혜 대상이 2,900여 농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 파급과 확산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올해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10억원) 등에 투입하고 2013년에는 농축순환자원화시설(50억원), 2014년에는 친환경산지유통시설(40억원)에 사업비를 쓸 계획이다.

전라북도

■ 익산시, FTA 대비 6년간 2천150억 투자

익산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해 6년간 2천150억원을 투자해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익산시는 전북 도내 14개 시·군에서 정읍시에 이어 농산물 생산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특히 포도, 고구마 재배와 한우, 돼지, 닭 사육농가가 많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축산분야에 160억원, 원예분야에 132억원 등 총 30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해 연말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안 통과 직후 익산시 공무원 6명, 시의원 1명, 농·축협 관계자 4명, 농민단체 관계자 7명으

로 대책반을 꾸려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 순창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순창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7일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총 5억4,400만원(국비 2억7,200만원, 지방비 1억3,600만원, 자부담 1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136여건의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로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납입하는 보험료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의 50%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은 풍수해나 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사고 특히 시 및 구제역과 같은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보험을 통해 농가의 긴급회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시가 80~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읍·면사무소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순정축협 등(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 뉴캐슬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청정지역을 선언(2009. 12. 29일)한 가금전염병(뉴캐슬병)에 대해 2011년 1·2차 일제 검

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에는 뉴캐슬병 병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금전염병(뉴캐슬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뉴캐슬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급성 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전염병으로, 제주지역은 2005년 이후 한 번도 발생이 없었지만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가금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일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에 실시한 가금전염병(뉴캐슬병) 청정화 일제검사는 도내 가금류(닭, 오리, 꿩 등)에 대해 뉴캐슬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항원검사와 뉴캐슬병 예방접종을 정확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항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항원검사는 46농가 3,620건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항체검사는 97농가 5,876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전농가 예방접종이 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전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검사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과 병행하여 타시도에서 반입되는 가금류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병원체가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통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가금전염병(뉴캐슬병)에 대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줄 것과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해주고, 농가별 채혈 및 시료채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